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최근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가 만남의 폭포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유세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인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연동 장악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홍률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前·現 시장 ‘리턴매치’에 정의당 후보 가서 ‘3파전’



<4>목포시장

김종식 “추진력 앞세워 위대한 목포시대 완성”

여인두 “30년 독주 막고 변화·혁신 시민정치”

박홍률 “청년 찾아오는 젊은 경제도시 만들것”

목포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 ‘리턴매치’가 성사돼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71) 후보와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무소속 박홍률(68) 후보,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 여인두(52) 후보 간 3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김 후보와 박 후보 간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진 이후 4년 만에 재대결을 치르기 때문이다. 당시 당락의 운명을 가른 표차는 292표(0.25%

p)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본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 민선 3·4·5기 완도군수,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선 7기 목포시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김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목포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점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시장 후보 비교

구분	김종식(더불어민주당)	여인두(정의당)	박홍률(무소속)
경력	-영암군 부군수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 -민선 3·4·5기 완도군수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선 7기 목포시장	-9·10대 목포시의원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목포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집행위원	-민선 6기 목포시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선대위 유능한 자치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6·15남북정상회담 실무주역 -덕인고등학교 교사
공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대기업 유치 -목포·신안 행정 통합·광역경제도시 도약 -목포대의대·병원 설립 -목포대 대개조·원도심 활성화 -임기 내 채무제로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설립 -목포형 압축도시 추진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성평등·장애 평등 친화도시 건설 -지역별 걸어서 10분 거리 통합돌봄센터 설치	-청년 스마트산단 조성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 -문화·예술 스포츠 활성화 지원 -부주동 고교 신설·의대 유치 등 신도심 보육 교육 의료 기반 조성 -신안·목포 선통합

를 성공리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종식 후보는 “시장·군수는 윤리 도덕성, 정책 구상 능력, 인적·물적 동원 능력,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춰야 한다”며 “일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정책 개발 전문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 후보는 “목포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대한 목포시대를 완성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은 ▲미래전략 산업 육성·대기업 유치 ▲목포·신안 행정 통합·

광역 경제도시 도약 ▲목포대 의대·병원 설립 ▲목포역 대개조·원도심 활성화 ▲임기 내 채무 ZERO 등이다.

재선 목포시의원 출신인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여 후보는 ‘소통 중심 발품정치’를 선거 전략으로 정했다. ‘같이 사는, 가치 있는 목포’를 구호로 내세우며 보다 정직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목포 건설을 약속했다.

여인두 후보는 “지방자치 30여년 동안 견제 세력 없는 기득권층의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시민 없는 나 홀로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이제는 목포시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왕인 시장, 시민이 주인인 목포시를 만들겠다”며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이루겠다”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여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목포대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설립 ▲목포형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추진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성평등·장애 평등 친화도시 건설 ▲지역별 걸어서 10분 거리 ‘통합돌봄센터’ 설치 등이다.

민선 6기 목포시장을 지낸 무소속 박홍률 후보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선대위 유능한 자치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6·15남북정상회담 실무 주역 등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는 소통 행정가이면서 세일즈 행정가인 장점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이 보내주는 ‘믿음’을 무기로 선거전략을 수립했다. 경험에 바탕을 둔,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박홍률 후보는 “지난 4년 간 목포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젊은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침체를 거듭하는 이유를 고민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 만들기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이 찾아오는 큰 목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청년 스마트산단 조성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 ▲문화·예술 스포츠 활성화 지원 ▲부주동 고교 신설, 의대 유치 등 신도심 보육 교육 의료 기반 조성 ▲신안·목포 선통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은진·목포=정해선 기자

글로벌 해상풍력기업, 전남 인재 우선 채용

道·CIP·유관기관·대학 ‘공급망 구축·인재 양성’ 협약

신안·영광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덴마크 기업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전남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와 CIP는 19일 전남풍력산업협

회, 해상풍력전력기자재협회, 현대스틸 산업, 목포신항만운영㈜, 대한조선㈜,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녹색에너지 연구원과 ‘전남지역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CIP가 신안·영광 일원에서 추진 중인 4GW 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과 관련, 전남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해상풍력 관련 공급망 구축·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지역 인재 우선 채용 ▲공급망 구축 시 전남지역 기업

적극 참여 ▲해상풍력 관련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시설 이용·기술정보 교류 ▲해상풍력 세미나 개최·기술 자문 등이다.

협약식은 이날 목포에 있는 CIP 전남 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진행됐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야콥 폴슨 CIP 회장, 유태승 CIP-COP 한국법인 공동대

표, 아이너 엘렌 주한 덴마크대사, 김원이 국회의원, 해상풍력 유관기관 및 지역 대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야콥 폴슨 회장은 “CIP는 신안에 3GW, 영광에 1GW 규모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관 기업의 공급망을 구축,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대학을 통한 해상풍력 전문 인재 양성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최근 전남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해상풍력사업

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도정 핵심 현안으로 적극 추진해 민간 투자기업의 성공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CIP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상풍력 유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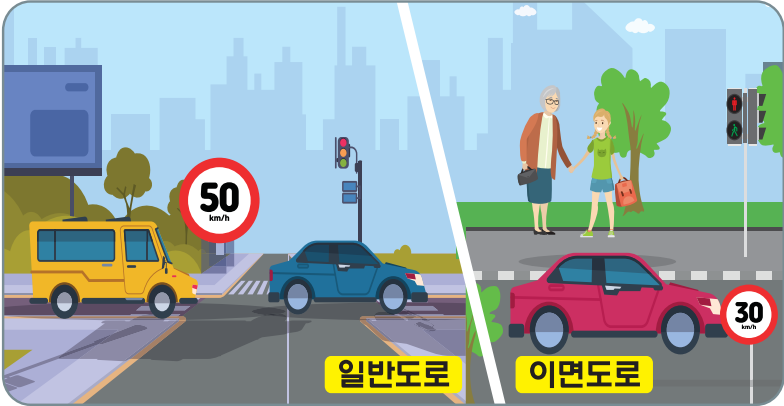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보행자 보호수칙, 기억해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안전속도 5030 준수!



어린이와어르신을 보호해주세요.

